

## 노인의 기분측정을 위한 도구(Profile of Mood States, POMS)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신 윤 희\*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은 사회·경제적 발전 및 의료 기술의 발달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1995년 현재 남 69.5세, 여 76.6세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1990년 7.7%에서 1995년 현재 9.0%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5). 또한 노인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는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 이외에도 노인들 스스로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 등이 복잡하게 관여하고 있다.

노인이란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즉 생물학적 능력의 감퇴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와 지각, 기억, 자아상, 동기, 자아개념 등과 같은 심리적인 변화 및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노인의 신체적 변화는 심리적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즉 신체기능의 쇠퇴는 체력의 감퇴와 함께 인내력의 부

족, 활동성 감퇴, 정력부족, 흥미범위의 협소화, 자기중심적이 되도록 한다(이, 1989). 또한 노령에 따른 지위 하락과 더불어 자기 스스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갖게 되고 극심한 경우에는 정신 병리현상까지도 일으키게 된다(윤, 1995). 이와 같이 노인이 되어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노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인들 스스로는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저조한 기분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느끼는 기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기분(mood)이란 용어는 보통 정서(emotion)나 감정(affect) 등의 용어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Morris, 1989). 우리말 큰사전(1992)에 의하면 기분은 '대상, 환경 따위에 따라 마음에 절로 생기며 한동안 지속되는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한 단순 감정'으로 정의되어 있고, McNair, Lorr와 Droppleman(1992)과 윤(1993)은 기분을 '당면 목표에 관한 예측과 최근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시적으로 지속되며 바뀔 수 있는 다차원적인 성질'이라고 하였다. 한편 기분과 함께 흔히 혼용되고 있는 정서는 우리말 큰사전(1992)에 '감정의 실마리, 본능을 기초로 하여 일어나는 일시적인 심적 현상'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강(1993)은 정서를 '신체적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인 변화를 수반하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흥분된 강한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도 기분 또는 정서가 서로 혼용되고 있다 (Morris, 1989). 그러나 심리학자인 McNair 등(1992)은 정신과 환자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기분상태 측정도구(Profile of Mood States, POMS)를 여러 상황에서 수 차례의 검증과 확인을 거쳐서 개발하였다. 그렇지만 이 도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적수준이 필요하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노인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문화에서의 노인에 대한 대우, 가족 결속력, 지지망 등이 노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포함하여 문화의 어떤 상태가 그들의 현재를 구성하는가 등의 문화적 요소를 배제하여서는 안된다. 문화는 다른 것으로 즉각적으로 대체되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수정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파악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Holzberg, 1982; 이영희, 1993). 그러므로 노인이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심리적 상태 못지 않게 노인의 현재 기분에 관한 파악이 중요하며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의 기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서양에서 개발된 도구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우리 문화에서 우리 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도구를 타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들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를 지니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그것을 토대로 하여 그의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McNair 등(1992)의 POMS를 우리 나라 노인들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한 기분측정도구로 타당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POM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기분의 측정내용은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도 노인에게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구를 축소,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McNair 등(1992)이 개발한 기분상태 측정도구, POMS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둘째, 우리 나라 노인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구를 수정한다.

## II. 문헌고찰

### 1. 노인의 심리적 노화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체의 모든 생리학적 기능이 감소하게 된다. 이들 기능은 대체로 20~25세에 최상에 이른 후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차차 감소하여 60대에는 그 기능이 25~30%나 감소하게 된다(Shephard, 1993). 정상적 노화과정이란 발생학적으로 유기체가 정상적인 환경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말한다(윤, 1995). 인간은 3가지 차원인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으로 노화하게 되는데 생물학적 노화란 유기체의 신체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그들의 생물학적 잠재능력을 소모해 버리는 정도를 가지고 관찰할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노화는 적응 능력의 융통성의 정도로 규정된다.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은 지각, 기억, 학습 및 추리력, 자아상, 동기 그리고 충동에 대한 속도와 정확성에 의존한다.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노화는 맡겨진 서로 다른 사회의 역할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전과 최, 1985).

노인에게 있어 전신의 체력이 감퇴하는 신체기능의 쇠퇴는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흥미의 범위를 협소화시키며, 시·청각 능력의 퇴화로 말미암아 타인과의 사고나 상호작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노인 스스로도 외부적 감각자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김, 1987). 즉 신체적 변화는 노인의 심리적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심리적 노화란 축적된 경험에 의한 행동, 감각, 지각기능,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장과 최, 1987). 감각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타인과의 사고나 상호작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자기 스스로도 외부적 감각자극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이 느려짐에 따라 젊은이보다 신체적 반응속도와 숫자 계산속도가 느려지고 자신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혼돈상태 등이 나타난다(윤, 1995). 한편 노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와 추상력에 있어서 저하를 보이고 노화는 지능을 저하시키는데 노인에게서 지능쇠퇴

가 진행되면 단체생활이나 가정생활을 곤란하게 하며 노인을 고립시켜 고독감을 느끼게 한다(최, 백, 이, 1990).

또한 노인이 됨에 따라 가정내의 위치가 변화하고 사회적으로도 직장으로부터 은퇴하고 경제적으로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것 등으로 인해 노인의 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년퇴직, 경제적 빈곤, 친지, 배우자, 자녀, 친족의 죽음 또는 이별, 심리적 고립과 소외감, 노인의 자존심이나 권위를 손상시킬만한 사건 등(박, 1983)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상에서 설명한 노인의 심리적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과학의 발달과 기계화로 노인의 경험과 지식은 점차 불필요하게 되었고 새로운 기술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젊은 세대의 진출로 노동시장에서 노인층은 점차 축출당하고 노인을 경시하고 아동을 더욱 중시하는 사회의 경향으로 젊은이들과 거리감이 생겨 고독과 불만이 증대되는 등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나타낸다(김, 1984). 노인이 되면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산업사회에서 가장 뚜렷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잃는 것이다. 또한 노년기에 배우자를 상실함에 따라 오는 아내 또는 남편으로서의 역할 상실도 하나의 예이다. 자식이 다 성장해서 독립해 나가거나 출가할 때 부모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 하나 하나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동고동락하던 친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도 노년기 역할 상실의 좋은 예이다(최, 성, 신, 이, 정, 1992).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할 상실로 인해 노년기에는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역할수행이나 자아투입이 크게 줄며 역할활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때는 고독감, 무감각 또는 무기력감으로까지 발전되어 자아존중감의 감소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인의 사회적 건강의 약화는 심각한 노인의 심리적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로 인해 노인들이 느끼는 기분을 파악하는 것은 노인간호에서 중요한 일이다.

## 2. 기분의 개념 및 기분 측정도구

많은 정서 이론가들은 기분을 감정 또는 정서와 같은 용어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분이라는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이론가

들은 '기분'이라는 용어의 독특한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이들 이론가들의 배경에 따라 기분에 대한 의미를 달리 부여하는 점도 있지만 기분을 기술하는 의미의 핵심은 유의하게 중복되고 있다(Morris, 1989). 이들 이론가들 사이에서 가장 명백히 일치하는 것은 첫째, 기분이 갖는 영향이 넓다는 것이다. 정서와 비교해 볼 때 정서는 비교적 제한된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기분은 폭넓게 퍼져 있는 대상과 사건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Morris, 1989). Isen과 Daubman(1984)은 기분과 정서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흥분한 상태로 화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화남의 정서가 화를 유발한 특수한 대상에 대한 지향성 또는 특별한 관련성을 가져서 노려보거나 소리지르거나 때리거나 무례하게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가지는데 반해, 흥분한 상태로 화난 경우의 느낌(Isen은 기분과 느낌을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함)은 그 영향과 대상이 매우 전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분의 영향이 전반적이고 널리 퍼지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정서는 비교적 제한적이라는데 일치한다. 둘째, 기분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기분이 정서보다는 덜 강렬하다는데 동의한다. 셋째, 기분이 갖는 역할이나 기능인데 기분은 사람의 일반적인 상태(*general state of being*)를 이루고 있다는 데에 대체로 일치한다. Nowlis(1970)가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분명한데 기분은 유기체에 대한 정보의 근원, 유기체의 현재 기능하고 있는 특성에 관한 중재변수 또는 근원적 요소라고 하였다.

요약해서 기분은 넓은 범위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정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 대부분이 기분을 유발하는 사건과 꼭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서와 비교해 볼 때 기분은 특징적으로 덜 강렬한 감정상태로서 자기조절 과정을 일으키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Morris, 1989).

기분의 측정은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밖에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측정방법이 '자기보고(*self-report*)'와 '행동적 측정'이다. 이 중 자기보고식 측정이 실험실이나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때때로 단 하나의 '좋고-나쁜' 척도가 사용되었는데, Johnson & Tversky(1983); Wilson, Laser, and Stone(1982) 등이다. 흔히 이것에 관한 척도의 세트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Isen & Gorgoglione(1983); Wessman & Ricks(1966) 등이다. 또는 많은 문항의 기분 척도가 사용될 수 있는데, 기분 행동사 체크 리스트(Nowlis, 1965), 우울 정서 체크 리스트(Lubin, 1965), 다문항 감

정 형용사 체크 리스트(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list)(Zuckerman, Lubin, Vogel, and Valerius, 1964), the Profile of Mood States(McNair, Lorr, and Droppelman, 1971) 등이다(Morris, 1989).

기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들도 기분과 정서가 혼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 Zuckerman이 1960년에 감정 형용사 체크 리스트(Affect Adjective Checklist)를 개발하여 보고한 바 있는데, 이것은 즉각적이고 일상적인 불안수준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도구이다. 여기에 덧붙여 Zuckerman(1964) 등이 우울과 적개심의 두 가지 새로운 척도를 추가 개발하였다. 불안 항목 21문항, 우울 항목 40문항, 적개심 항목 28문항으로 되어 있는 도구의 각 영역은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Zuckerman 등은 이 도구를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유도된 정서를 측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Zuckerman 등, 1964).

Wessman과 Ricks는 기분의 측정을 위해서 개인의 느낌 척도(Personal Feeling Scale)를 개발하였는데, 이들은 기분이 하나의 현상이 아니고 분화되어 있는 다양한 차원을 갖는다고 생각하여 16가지로 구분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첫째, 삶에 대한 충만감 대 공허(fullness vs. emptiness of life), 둘째, 세상에 대한 수용과 세상에 의한 자극(receptivity towards and stimulation by the world), 셋째, 사회적 존중 대 사회적 멸시(social respect vs. social contempt), 넷째, 개인적 자유 대 외적 억압(personal freedom vs. external constraint), 다섯째, 조화 대 분노(harmony vs. anger), 여섯째, 사회화 대 철회(own sociability vs. withdrawal), 일곱째, 동료에 대 고립감(companionship vs. being isolated), 여덟째, 사랑과 성(love and sex), 아홉째, 현재의 일(present work), 열번째, 사고과정(thought processes), 열한번째, 평온 대 불안(tranquillity vs. anxiety), 열두번째, 충동적 표현 대 자기억제(impulse expression vs. self-restraint), 열세번째, 개인의 도덕적 판단(personal moral judgment), 열네번째, 자기확신 대 부적절감(self-confidence vs. feeling of inadequacy), 열다섯번째, 에너지 대 피로(energy vs. fatigue), 열여섯번째, 의기양양 대 우울(elation vs. depression)의 16가지가 각각 가장 긍정적

인 응답 10점에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 1점까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Wessman and Ricks, 1966).

윤(1993)은 연구에서 McNair 등(1992)이 개발한 기분상태 측정도구, POMS를 번역하여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측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기분을 묘사하는 도구로서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7개 요인-6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긴장과 불안 요인(tension-anxiety) 9문항, 의기소침과 낙심 요인(depression-dejection) 15문항, 분노와 적개심 요인(anger-hostility) 12문항, 생기와 활력 요인(vigor-activity) 8문항, 피곤과 무기력 요인(fatigue-inertia) 7문항, 혼돈과 당황 요인(confusion-bewilderment) 7문항, 우호 요인(friendliness) 7문항으로써 총 65문항이다.

또한 단순히 좋고-나쁜 척도를 사용한 예를 보면, Johnson과 Tversky(1983)는 위험에 대한 지각과 감정에 관한 연구에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9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Wilson 등(1982)은 연구에서 아주 나쁜(very bad)에서 아주 좋은(very good)까지의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송(1988)은 정서 측정 도구로 10cm의 도표를 100점 척도로 하여 기분 좋고 행복한 정도와 기분 나쁘고 우울한 정도를 표시하게 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남자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적응을 연구한 정(1993)은 은퇴후 정서 적응에 해당하는 심리상태 경험에 관한 26문항으로 불안-10문항, 안녕-6문항, 우울-10문항으로 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도구들을 검토한 결과, Wessman과 Ricks(1966)의 개인의 느낌 척도(Personal Feeling Scale)는 너무 포괄적이며, Zuckerman(1964)이나 정(1993)에서 사용된 도구는 기분을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제한적이고, Johnson과 Tversky(1983), Wilson 등(1982), 송(1988)과 같이 단순히 좋고-나쁜 것으로만 질문하는 것도 너무 제한적이어서 노인의 전반적인 기분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기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라고 판단되는 McNair 등(1992)이 개발한 기분상태 측정도구, POMS를 활용하고자 하며 연구의 필요성에서 밝혔듯이 우리 나라 노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일반적으로 인구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노인복지 관련 회의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등, 1993)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서울, 부산, 청주, 군포를 비롯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 노인들을 임의로 표출하였으므로 표본표출 방법은 편의표출법(convenience sampling)이다. 따라서 임의로 표출된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 37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들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은 51명의 자료는 제외되어 총 319명의 자료(86%)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McNair 등(1992)이 개발한 기분상태 측정도구, POMS를 윤(1993)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이다. 이 도구를 사용하기에 앞서 본 연구자는 노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도구의 번역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간호학 교수 3명과 박사과정생 2명, 노인 4명에게 질문지를 보여서 문항의 내용과 번역을 검토하게 하여 65문항을 전체적으로 약간 수정하였다. 수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윤(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형용사형 어미(ex. -한)를 동사형 어미(ex. -하다)로 수정하였다. 둘째, 번역에서 수정된 것은 10. 동요되는(shaky)→불안정하다, 18. 우울한(blue)→울적하다, 19. 활기넘치는(energetic)→정력적이다, 20. 허겁지겁한(panicky)→겁에 질리다, 22. 이완된(relaxed)→마음이 느긋하다, 26. 불편한(uneasy)→근심스럽다, 30. 도움이 되는(helpful)→남에게 도움이 되다, 33. 분개한(resentful)→성을 낸다, 34. 신경질적인(nervous)→신경과민이다, 40. 탈진된(exhausted)→지쳐버리다, 46. 나태한(sluggish)→움직임이 둔하다, 48. 곤경에 빠진(helpless)→무기력하다, 52. 기만당한(deceived)→배신당하다, 59. 망각하기 쉬운(forgetful)→쉽게 깜빡 잊는다, 62. 죄를 범한(guilty)→죄책감을 느끼다, 64. 불확실한(uncertain about thing)→매사가 불확실하다로 모두 16문항이다.

이상과 같이 전문가들에 의한 내용타당도와 노인들에 의한 사전 조사를 거쳐서 다듬어진 도구를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방법으로 점수화 하되 긍정적인 문항은 역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기분상태가 저조한 것을 의미한다. 기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96으로 높게 나타났다.

#### 3.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1996년 2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되었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면담을 첨가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도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노인은 스스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국문 해독이 어렵거나 질문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노인은 연구자와 4명의 연구 보조자가 그대로 읽어 주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자와 4명의 연구 보조자간의 질문방법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연구자가 질문지에서 사용된 문항의 의미와 점수화된 척도의 측정방법을 자료수집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 보조자에게 이해시키고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하여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7개 요인-65문항으로 이루어진 POMS가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구성되는지에 관한 구성타당도를 보기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였으며, 도구의 내적일관성을 보기 위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Coefficient Alpha로 하였다.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 분포는 60~64세 93명(29.2%), 65~69세 99명(31.1%), 70~74세 52명(16.3%), 75~79세 40명(12.5%), 80~84세 25명(7.9%), 85세 이상 10명(3%) 이었다. 성별 분포는 남자노인 130명(40.8%), 여자노인 189명(59.2%)으로 우리나라의 남녀 성비가 1995년에 남자 7.3 :

여자 10.9인 비율(보건복지부, 1995)과 비추어 보면,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남자노인이 많은 편이다. 직업이 있는 노인은 68명(21.6%), 직업이 없는 노인은 251명(78.4%)이었으며, 결혼 여부는 미혼 3명(0.9%), 기혼 216명(67.7%), 사별 97명(30.5%), 이혼 2명(0.6%), 별거 1명(0.3%)이었다. 대상 노인들의 교육정도는 무학 66명(20.7%), 국졸 80명(25.1%), 중졸 43명(13.4%), 고졸 57명(17.9%), 대졸이상 72명(22.6%), 무응답 1명(0.3%)이었다. 노인들이 지각하고 있는 경제상태를 질문하였을 때, 상 8명(2.5%), 중상 63명(19.7%), 중 167명(52.4%), 중하 48명(15.1%), 하 33명(10.3%)이었으며, 용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본인 142명(44.5%), 배우자 45명(14.1%), 자녀 112명(35.1%), 기타 20명(6.3%)이었다.

## 2. 기분측정도구(POMS)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근거한 도구의 수정

### 1) 도구의 신뢰도<표 1 참조>

McNair 등(1992)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윤(1993)이 번역하여 사용한 기분측정도구를 전체적으로 수정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96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 Cronbach Coefficient Alpha

for RAW variables : 0.962951  
STANDARDIZED variables : 0.960942

Deleted Variable	Raw Variables		Std. Variables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if item deleted	Correlation with Totl	Alpha if item deleted
V1*	0.038943	0.963629	0.049532	0.961820
V2*	0.268205	0.963178	0.274773	0.961114
V3	0.345153	0.962879	0.358206	0.960850
V4	0.651455	0.961980	0.645095	0.959934
V5	0.633558	0.962083	0.641173	0.959947
V6	0.497997	0.962471	0.493866	0.960419
V7	0.531633	0.962371	0.527586	0.960311
V8	0.586165	0.962225	0.588598	0.960116
V9	0.568796	0.962254	0.573478	0.960164
V10	0.703075	0.961825	0.699471	0.959759
V11	0.695475	0.961815	0.684299	0.959808
V12	0.564985	0.962272	0.573411	0.960164
V13*	0.036732	0.963770	0.034387	0.961867
V14	0.665474	0.961928	0.667369	0.959862
V15	0.303213	0.963114	0.296952	0.961044
V16	0.679034	0.962023	0.682320	0.959814
V17	0.709403	0.961891	0.709458	0.959726

Deleted Variable	Raw Variables		Std. Variables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if item deleted	Correlation with Totl	Alpha if item deleted
V18	0.735027	0.961714	0.731280	0.959656
V19	0.420621	0.962707	0.409273	0.960688
V20	0.449803	0.962607	0.453000	0.960549
V21	0.700243	0.961782	0.691368	0.959785
V22*	0.100226	0.963566	0.104690	0.961648
V23	0.719145	0.961753	0.713033	0.959715
V24	0.304103	0.962962	0.319181	0.960974
V25*	0.019686	0.963862	0.026945	0.961890
V26	0.744647	0.961647	0.738744	0.959632
V27	0.373756	0.962785	0.383844	0.960769
V28	0.669190	0.961909	0.659811	0.959887
V29	0.511174	0.962437	0.501596	0.960394
V30	0.397890	0.962784	0.391938	0.960743
V31	0.701241	0.961810	0.697058	0.959766
V32	0.747296	0.961667	0.742561	0.959619
V33*	0.149809	0.963391	0.163650	0.961463
V34	0.566219	0.962271	0.572265	0.960168
V35	0.688603	0.961824	0.681626	0.959816
V36	0.712925	0.961813	0.711382	0.959720
V37	0.690302	0.961834	0.682759	0.959813
V38	0.482457	0.962516	0.481464	0.960459
V39	0.700591	0.961812	0.692671	0.959781
V40	0.781098	0.961489	0.774407	0.959516
V41	0.755197	0.961618	0.753528	0.959584
V42	0.333584	0.962869	0.348682	0.960881
V43*	0.239266	0.963203	0.242343	0.961216
V44	0.775731	0.961617	0.767944	0.959537
V45	0.661042	0.961967	0.659894	0.959886
V46	0.581269	0.962213	0.572597	0.960167
V47*	0.226370	0.963102	0.245606	0.961206
V48	0.767253	0.961588	0.757492	0.959571
V49	0.768390	0.961603	0.764550	0.959548
V50	0.611814	0.962209	0.617134	0.960024
V51	0.249643	0.963194	0.239259	0.961226
V52	0.419501	0.962683	0.434239	0.960609
V53	0.487360	0.962503	0.503111	0.960389
V54	0.475950	0.962540	0.471267	0.960491
V55*	0.226629	0.963246	0.231385	0.961251
V56	0.461980	0.962585	0.452051	0.960552
V57	0.636220	0.962102	0.635193	0.959966
V58	0.726636	0.961734	0.723113	0.959682
V59	0.473251	0.962561	0.463552	0.960516
V60*	0.019841	0.963797	0.024091	0.961899
V61	0.575590	0.962249	0.578016	0.960150
V62	0.328344	0.962927	0.337487	0.960916
V63	0.418664	0.962690	0.406041	0.960699
V64	0.681159	0.961925	0.671996	0.959847
V65	0.747434	0.961637	0.737559	0.959635

\* Alpha값에 의해 제외된 문항

다. 그러나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한 기본측정도구로 타당화시키는 것, 다시 말해 기분의 측정내용은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도 노인에게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65문항의 도구를 축소, 수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의미하는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에서 전체 문항과의 상관성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였다.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전체와의 상관관계 계수가 .02이하 또는 .03이하인 문항을 제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02이하로 상관관계가 나타난 6개의 문항(1번, 13번, 22번, 25번, 33번, 60번)과 .03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인 5개의 문항(2번, 43번, 47번, 51번, 55번) 가운데 51번을 제외한 10개의 문항을 제외하였다.

이들 문항이 제외된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10개의 문항 중에서 '1번-친절하다', '13번-신중하다', '25번-동정심있다', '43번-온화하다', '55번-신뢰하다'의 5개 문항은 McNair 등(1992)의 POMS에서 우호(Friendliness)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로서 기분보다는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제외하였다. 이 도구를 개발한 McNair 등(1992)도 우호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기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특성, 자질(trait)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가 낮다고 하였다. 또한 Morris(1989)도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정서는 주관적인 안녕감(well-being)과 일반적인 행복감으로 여겨지며 긍정적인 정서의 많은 부분이 사회적인 접촉과 좋았던 시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것을 기분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22번-마음이 느긋하다'와 '60번-대평스럽다'는 전체문항과의 상관계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요인분석에서도 이 두 문항만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고, 불안을 나타내는 다른 문항들(예를 들어, '10번-불안정하다', '41번-불안하다' 등)에 포함된다고 생각되어 제외하였다. 그리고 '2번-긴장하다'는 전체 문항과의 상관관계도 낮았지만 이보다 사전 조사를 비롯한 노인들과의 질문지 조사에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많았으므로 제외하였다. '33번-성을 낸다'는 전체와의 상관계수가 0.149809로 낮았고 다른 문항들(예를 들어, '3번-화가 난다' 등)과 의미가 많이 중복되어 제외하였다. 또한 '47번-반항적이다'는 전체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타당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내용이 부적절한 것으로 제기되어 제외하였다. 이상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구의 신뢰도를 내적 일관성에 비추어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체와의 상관관계가 낮은 11개의 문항 중 '51번-민첩하다'를 제외한 10개의 문항을 도구에서 제외하였다. 51번 문항은 전체와의 상관계수는 0.249643으로 낮지만 요인분석에서 활력 요인으로 구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문항의 의미를 포함하는 다른 문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도구에 포함하였다.

## 2) 도구의 타당도

### (1)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는 측정도구의 내용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McNair 등(1992)에 의해 개발되어 여러 세팅에서 여러 대상에게 적용하여 검증된 바 있는 기본 측정도구, POMS를 우리 나라 노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인 내용타당도의 확인절차를 거쳤다. 즉 도구의 개발을 위한 내용타당도 검증이라면 마땅히 거쳐야 하는 내용분류표나 이론에서 비롯된 도구의 논리성을 검토한다거나 하는 단계는 이미 McNair 등에 의해 진행되었고, 또한 윤(1993)이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도구의 문항이 65문항으로 노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고, 우리 나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기분 내지는 정서는 서양에서 표현되는 것보다는 적어서 도구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측면에서 POMS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첫째 단계로 간호학 교수 3명, 박사과정생 2명에게 도구의 번역과 중복되는 문항 및 유사한 문항을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영문과 교수 2명에게 번역상의 문제를 검토 받았다. 두번째 단계로 노인 4명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중복되는 문항을 지적하게 하였고 의미가 난해하거나 애매한 문항을 지적 받았다. 또한 세번째 단계로 연구도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윤(1993)이 사용한 도구를 전체적으로 수정하여 본 연구의 대상노인들에게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이해가 어려웠던 문항도 참고로 하여 도구를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구를 수정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수정된 내용을 요인별, 문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Nair 등(1992)의 POMS에서 긴장과 불안 요인에 속하는 9개의 문항 가운데 5개의 문항이 제외되었

<표 2> 요인 분석 및 도구의 수정

변수	영문	번역(최종번역)	F1	F2	F3	F4	F5	F6	F7	문항삭제이유
V1	friendly	친절하다	-0.17	0.18	0.21	0.50	-0.11	0.20	-0.04	alpha 값
V2	tense	긴장하다	0.22	-0.14	0.19	-0.11	0.53	0.02	0.10	alpha 값, 의미난해
V3*	angry	화가 나다(화가 난다)	0.15	-0.04	<b>0.41</b>	0.08	0.55	-0.06	-0.10	
V4	worn-out	기진맥진하다	0.62	0.16	0.10	0.02	0.31	-0.11	-0.05	의미중복
V5	unhappy	불행하다	0.49	0.07	0.34	0.09	0.41	0.02	0.21	너무 포괄적
V6*	clear-headed	상쾌하다	0.31	<b>0.48</b>	-0.01	0.39	0.10	0.18	0.10	
V7*	lively	활기차다(생기 넘친다)	0.31	<b>0.63</b>	0.01	0.31	0.08	0.07	0.01	
V8*	confused	혼란스럽다	<b>0.49</b>	0.06	0.25	0.11	0.36	-0.10	-0.07	
V9*	sorry	했던 일이 후회스럽다	<b>0.49</b>	0.00	0.27	0.12	0.36	-0.12	0.14	
V10*	shaky	불안정하다	<b>0.66</b>	0.16	0.20	-0.07	0.25	0.01	0.02	
V11*	listless	의욕이 없다	<b>0.69</b>	0.22	0.03	0.05	0.21	-0.18	-0.06	
V12*	peevied	짜증나다(짜증난다)	0.40	0.12	<b>0.35</b>	0.05	0.46	0.05	-0.12	
V13	considerate	신중하다	0.00	0.13	-0.15	0.51	-0.21	0.00	-0.03	alpha 값
V14*	sad	슬프다	<b>0.60</b>	0.11	0.24	-0.04	0.23	0.25	0.24	
V15*	active	활동적이다	0.16	<b>0.56</b>	-0.03	0.20	-0.13	-0.03	-0.17	
V16	on edge	안절부절하다	0.62	0.06	0.25	0.03	0.28	0.18	0.16	의미중복
V17	grouchy	시무룩하다	0.63	0.19	0.24	-0.01	0.22	0.20	0.03	의미난해
V18*	blue	울적하다	<b>0.71</b>	0.16	0.15	0.01	0.17	0.19	0.06	
V19	energetic	정력적이다	0.27	0.67	-0.12	0.06	0.01	0.06	0.03	의미중복
V20	panicky	겁에 질리다	0.39	0.08	0.32	-0.10	0.08	0.15	-0.10	의미중복
V21*	hopeless	희망이 없다	<b>0.74</b>	0.14	0.06	0.09	0.00	-0.11	0.22	
V22	relaxed	마음이 느긋하다	0.02	0.09	-0.01	0.27	-0.07	0.57	-0.11	alpha 값
V23	unworthy	무의미하다	0.68	0.20	0.14	0.09	0.15	-0.18	0.12	의미중복
V24*	spiteful	심술나다(심술이 난다)	0.17	-0.03	<b>0.58</b>	0.09	0.04	-0.09	-0.12	
V25	sympathetic	동정심 있다	-0.12	0.08	0.01	0.55	-0.04	0.25	0.07	alpha 값
V26*	uneasy	근심스럽다	<b>0.73</b>	0.16	0.12	-0.08	0.28	0.15	-0.04	
V27	restless	들떠있다	0.29	-0.10	0.46	0.02	0.14	-0.02	0.04	의미난해
V28*	unable to concentrate	집중할 수 없다	<b>0.68</b>	0.29	0.06	-0.09	0.04	0.01	-0.07	
V29*	fatigued	피곤하다	<b>0.59</b>	0.10	0.02	-0.08	0.03	0.10	-0.35	
V30*	helpful	남에게 도움이 되다	0.24	<b>0.52</b>	-0.06	0.32	-0.07	0.06	0.06	
V31	annoyed	귀찮다	0.66	0.18	0.18	0.11	0.17	-0.07	-0.17	의미중복
V32	discouraged	의기소침하다	0.68	0.23	0.20	0.12	0.17	-0.19	0.02	의미중복
V33	resentful	성을 낸다	0.05	-0.14	0.51	-0.05	0.12	0.00	-0.14	alpha 값, 의미중복
V34*	nervous	신경과민이다(잔신경을 쓴다)	<b>0.49</b>	0.05	0.38	-0.09	0.23	0.09	-0.07	
V35*	lonely	외롭다	<b>0.72</b>	0.13	0.12	0.04	0.01	0.05	0.15	
V36	miserable	비참하다	0.64	0.18	0.19	0.16	0.15	-0.07	0.36	의미중복
V37	muddled	머리가 멍하다	0.72	0.14	0.09	-0.09	0.16	0.07	-0.08	의미중복
V38*	cheerful	즐겁다	0.29	<b>0.45</b>	0.03	0.37	0.07	0.15	0.09	
V39*	bitter	쌘쓸하다	<b>0.76</b>	0.05	0.11	0.06	0.03	0.00	0.06	
V40*	exhausted	지쳐버리다(지친다)	<b>0.79</b>	0.18	0.18	0.05	0.06	-0.04	-0.09	
V41*	anxious	불안하다	<b>0.73</b>	0.15	0.19	-0.07	0.21	0.28	0.03	
V42*	ready to fight	싸우고싶다	0.21	-0.13	<b>0.62</b>	0.01	0.09	0.09	0.11	
V43	good-natured	온화하다	0.10	0.07	-0.04	0.62	0.25	0.01	0.00	alpha 값
V44	gloomy	침울하다	0.76	0.22	0.12	0.02	0.15	0.00	0.18	의미중복
V45	desperate	절망적이다	0.69	-0.03	0.21	0.09	0.07	-0.13	0.30	의미중복
V46*	sluggish	움직임이 둔하다(처진다)	<b>0.56</b>	0.36	0.08	-0.09	0.02	-0.16	-0.15	
V47	rebellious	반항적이다	0.07	-0.10	0.69	-0.02	0.02	0.06	-0.05	alpha 값, 부적절
V48*	helpless	무기력하다	<b>0.75</b>	0.28	0.07	0.08	0.09	-0.05	-0.18	
V49	weary	싫증나다	0.72	0.23	0.23	0.09	0.01	0.01	0.03	의미중복
V50	bewildered	당혹스럽다	0.57	0.02	0.38	0.08	0.04	-0.02	-0.03	의미중복



변수	영문	번역(최종번역)	F1	F2	F3	F4	F5	F6	F7	문항상제이유
V51*	alert	민첩하다	0.14	0.58	-0.21	0.26	-0.15	-0.02	-0.02	
V52*	deceived	배신당하다	0.27	0.04	0.60	-0.05	0.02	0.10	0.26	
V53	furious	격분하다	0.31	0.00	0.68	-0.01	0.14	-0.05	0.17	의미중복
V54*	efficient	능률적이다	0.27	0.56	-0.05	0.44	0.07	0.02	-0.06	
V55	trusting	신뢰하다	0.00	0.29	0.05	0.61	0.08	0.05	0.01	alpha값
V56	full of pep	원기왕성하다	0.27	0.75	-0.07	-0.01	0.08	0.04	0.00	의미중복
V57	bad-tempered	기분이 언짢다	0.60	0.10	0.25	-0.06	0.16	0.03	0.04	너무 포괄적 의미
V58*	worthless	가치 없다(존중받을 가치 없다)	0.73	0.14	0.27	0.06	-0.12	-0.06	0.19	
V59*	forgetful	쉽게 깜박 잊는다	0.55	0.12	-0.01	0.01	-0.07	-0.04	-0.21	
V60	carefree	태평스럽다	-0.07	0.09	-0.02	0.15	0.03	0.46	0.05	alpha값
V61*	terrified	두렵다	0.57	0.07	0.35	-0.06	-0.06	0.00	-0.01	
V62	guilty	죄책감을 느끼다	0.25	-0.08	0.47	-0.06	0.14	-0.19	0.11	의미난해
V63*	vigorous	힘이 솟는다	0.27	0.69	-0.13	-0.06	0.02	0.11	0.08	
V64*	uncertain about things	매사가 불확실하다	0.71	0.17	0.10	0.08	-0.06	-0.09	0.04	
V65	bushed	맥이 빠지다	0.78	0.22	0.11	0.05	-0.07	0.00	-0.07	의미중복

\* 최종적으로 도구에 포함된 변수(문항)임

F1 불안-우울 요인 (21문항), F2 활력 요인 (8문항), F3 분노 요인 (5문항)

는데, 이들은 '2번-긴장하다', '16번-안절부절하다', '20번-겁에 질리다', '22번-마음이 느긋하다', '27번-들떠 있다' 이다. 이 중에서 2번과 22번 문항은 앞의 신뢰도에서 제외된 근거를 이미 제시하였고, 16번, 20번, 27번은 여러 사람에게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10번-불안정하다', '26번-근심스럽다', '41번-불안하다', '61번-두렵다' 등과 중복된다고 지적하였으므로 제외하였다.

두번째로 POMS의 의기소침과 낙심 요인에 해당되는 15개의 문항 중에서는 7개의 문항이 제외되었는데, 이들은 '5번-불행하다', '23번-무의미하다', '32번-의기소침하다', '36번-비참하다', '44번-침울하다', '45번-절망적이다', '62번-죄책감을 느끼다'이다. 제외된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5번의 경우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고, 23번은 '58번-가치없다'와 의미가 중복되며, 32번은 '21번-희망이 없다'나 '48번-무기력하다'에 그 의미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시에도 의미의 전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서 제외하였다. 또한 36번과 44번, 그리고 45번은 '14번-슬프다', '18번-울적하다', '21번-희망이 없다' 등과 각각 그 의미가 중복되고 노인들의 이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었으며, 62번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시에 의미전달이 어려웠고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합의되어 제외하였다.

세번째로 POMS의 생기와 활력 요인에 해당되는 8개의 문항 중에서는 3개의 문항이 제외되었다. 이들은 '19번-정력적이다', '56번-원기왕성하다', '60번-태평스

럽다' 이다. 19번과 56번은 '7번-활기차다', '63번-힘이 솟는다'와 의미에 있어서 중복된다고 합의가 되어서 제외하였고, 60번은 앞서 신뢰도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네번째로 POMS의 피곤과 무기력 요인에 속하는 7개의 문항 중에서는 3개의 문항이 제외되었는데, 이들은 '4번-기진맥진하다', '49번-싫증나다', '65번-맥이 빠지다' 이다. 이들을 제외한 근거는 이 문항들이 '29번-피곤하다', '40번-지쳐버리다', '46번-움직임이 둔하다(처진다로 번역수정함)'와 의미가 중복되고 있다고 합의가 되어서 제외하였다.

다섯번째로 POMS의 혼돈과 당황 요인에 해당되는 7개의 문항 가운데 2개의 문항이 제외되었는데, 이들 문항은 '37번-머리가 멍하다', '50번-당혹스럽다' 이다. 이들 문항은 '8번-혼란스럽다', '28번-집중할 수 없다'와 의미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어 제외하였다.

여섯번째, POMS의 우호 요인에 해당되는 7개의 문항 중에서는 5개의 문항이 제외되었는데, 이 문항들에 관해서는 이미 신뢰도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POMS의 분노와 적개심 요인에 해당되는 12개의 문항 중에서는 6개의 문항이 제외되었는데, '17번-시무룩하다', '31번-귀찮다', '33번-성을 낸다', '47번-반항적이다', '53번-격분하다', '57번-기분이 언짢다' 이다. 17번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 해석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한 의견도 애매한 문항이라고 지적되어 제외하였으며, 31번은 영영사전(Longman, 1993)에 의하면

「make a little angry」로 해석되고 있어서 '3번-화가나다'에 의미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였다. 33번과 47번은 앞서 신뢰도에서 언급하였고 57번은 기분이라는 도구의 큰 개념으로 너무 포괄적 의미라고 합의되어 제외하였다.

심리학자들은 정서적 경험의 특수한 성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기분을 사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가 하나 이상의 긍정적인 정서와 하나 이상의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한다(Grove and Prapavessis, 1992). POMS의 심리측정에 관한 속성은 상당히 좋다. 그러나 Schacham(1983)이 지적하였듯이 POMS의 65문항을 완성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대상들, 예를 들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고통 중에 있는 환자, 그리고 노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원래의 POMS와 마찬가지로 좋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면서 상황이나 대상자 자신에 의해 초래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축약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Schacham(1983)은 POMS의 축약형(37문항)을 병원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바 있다. Grove와 Prapavessis(1992)는 스포츠 세팅에서 적용할 때 Schacham의 척도를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도구는 Schacham(1983)의 척도에 자존감과 관련된 5개의 문항이 추가되고 2개의 문항이 제외되어 긴장(6문항), 우울(6문항), 피로(5문항), 활력(6문항), 혼돈(5문항), 분노(7문항), 자존감(5문항)의 정서와 관련된 40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Grove와 Prapavessis(1992)는 이 도구를 네트볼 선수의 운동직후의 기분을 측정하는데 적용하였는데 도구의 값은 0.798이었다. 이 축약형에 포함된 문항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에서 수정된 도구의 34문항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화도 다르고 연령층도 다를 뿐만 아니라 Grove와 Prapavessis(1992)의 결과는 본인들이 지적하였듯이 대상자의 수가 45명으로 작다는 제한점이 있고 신뢰도를 의미하는 값도 본 연구에 비해서 많이 낮으므로 본 연구결과가 더욱 신뢰로운 것으로 생각된다.

## (2) 구성타당도

구성타당도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구성이 다른 구성과 관련하여 기능하는지를 예측하는 타당도이다(이, 임, 박, 1991). 이러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1994, 1995)가

제시한 요인분석의 단계를 참조로 하여 기분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을 진행하는 첫번째 단계는 원자료를 수집하고 측정변수를 검토하며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분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n개의 변수가 있을 때 필요한 표본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없다. Gorsuch(1983)는 변수의 5배 이상의 표본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Nunnally(1978)는 10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인구조가 확실하게 들어있는 경우에는 표본크기가 작아도 별 무리없이 요인구조가 드러나겠지만 탐색적인 경우에는 표본이 크지 않을 경우 요인구조의 발견이 어려워진다(이, 1994).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도구는 McNair 등에 의해 개발되어 요인구조가 확실히 제시된 도구이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타당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므로 변수(65문항)의 5배 이상의 표본크기(370명)를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319명의 자료가 분석되어 변수의 4.91배의 표본크기로 요인분석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상관계수를 검토하여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1.0에 가까우면 변수들을 합치거나 어떤 조정이 필요하고 0에 가까우면 그 자료에서 요인구조를 뽑아 내기가 어려운데(이, 1995) 그러한 변수는 없었다. 변수의 숫자가 적다면 상관계수의 행렬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변수의 수가 65개나 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요인분석의 두번째 단계는 요인분석의 모형을 선정하는 것이다. 즉 공통요인이 아닌 주성분을 추출하는 요인분석의 모형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공통요인만 추출하는 요인분석의 모형인 공통요인 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고유요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공통요인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타당하다(이종구, 1993; 이, 1994). 따라서 인간의 기분을 측정하는 POMS도 그 변수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의 모형을 공통요인 분석으로 하였다.

다음 단계는 공통요인 분석에 따른 공통분의 추정치를 선정하는 것이다. 공통분, 즉 각 변수의 분산 가운데 공통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연구자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대체로 각 변수의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제곱치)를 공통분의 추정치로 사

용하므로(이, 1994, 1995), 본 연구에서도 SMC로 하였다. 그러나 공통분의 추정치를 SMC로 하여 분석한 결과와 default(SAS에서 공통요인 분석을 할 때 공통분의 추정치를 연구자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1.0을 공통분의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결국 주성분 분석의 解를 얻게 된다.)로 한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변수의 수가 많아질수록 주성분 분석과 공통요인 분석의 결과에서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이종구, 1993)과 일치하고 있다.

다음은 분석 상관행렬을 분해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의 수효를 결정하는 것이다. 요인 추출방법으로는 주축분해나 최대우도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다. 주축분해법을 사용할 경우, 요인의 수효를 결정하는 방법은 고유치의 값이 현저히 작아지면서 평균화되기 전까지의 요인의 수효를 취하는 스크리 검사, 추출되는 요인들이 누적해서 설명하는 분산의 퍼센트를 의미하는 누적 분산퍼센트, 그리고 해석 가능성 등이 있다. 그런데 POMS는 McNair 등(1992)에 의해서 7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해석 가능성을 생각하여 요인의 수효를 7개로 하여 SAS로 분석하였다. 분석상관행렬의 고유값(eigenvalue)은 <표 3>과 같다.

끝으로 요인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요인행렬을 회전하게 되는데 직각회전과 사각회전의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VARIMAX방식으로 직각회전하였는데 그 결과로 얻어진 최종요인행렬은 <표 2>와 같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POMS는 긴장과 불안 요인, 의기소침과 낙심 요인, 분노와 적개심 요인, 생기와 활력 요인, 피곤과 무기력 요인, 혼돈과 당황 요인, 우호 요인의 7개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나타난 최종요인행렬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서양에 비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다양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그 표현은 더욱 절제된다고 생각한다. 즉 나쁜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슬픈 마음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등 모든 면에서 삼가하는 것이 우리 나라 노인들의 속성

이다(조, 1992). 또한 Watson과 Clark(1988)가 언급하였듯이 부정적인 정서는 부정적인 여러 사건들에 의해 유발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각각의 사건에 의해 특수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보다 포괄적이고 만성적인 고민거리에 의해 전반적으로 저조한 기분상태를 보다 통합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Morris, 1989). 그러한 성향을 반영하듯 기존의 도구에서는 7개로 구분되어 있는 요인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치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많은 항목들이 제 1요인(37문항)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제 2요인에 10문항, 제 3요인에 8문항, 제 4요인에 5문항, 제 5요인에 3문항, 제 6요인에 2문항이 각각 속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제 6요인에 속하는 2문항(22번과 60번)은 두 문항만 달리 구분될 뿐만 아니라 Alpha 값도 낮았고 전문가 합의에서도 타당하지 않게 나타나서 제외하였다. 또한 제 5요인에 속하는 3문항(2번, 3번, 12번)중에서 2번의 경우는 앞의 신뢰도와 내용타당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lpha 값과 전문가 합의에 의해 제외되었으며, 3번과 12번은 5요인의 요인부하치가 가장 높지만 3요인의 요인부하치도 역시 높은 편이고 의미상 제 3요인에 속하는 다른 문항들과 유사하므로 제 3요인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제 4요인에 속하는 5개의 문항은 앞의 신뢰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노인의 기분을 측정하는 도구는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었으며, 3개의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 가운데 신뢰도와 내용타당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문항들을 빼고 총 34문항(제 1요인-21문항, 제 2요인-8문항, 제 3요인-5문항)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요인분석의 과정에서 요인의 수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석 가능성 뿐만 아니라 스크리 검사나 누적 분산퍼센트에 의존한 결과에서도 3개의 요인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전체 POMS에 대한 3개 요인의 설명력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 1요인이 52.8%, 제 2요인이 13.7%, 제 3요인은 6.7%로 3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73.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3개의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3> Eigenvalues of the Reduced Correlation Matrix

Total=40.6368223 Average=0.62518188

	1	2	3	4	5	6	7	8	9	10	11	12
Eigenvalue	21.449302	5.566822	2.750601	1.265787	1.213911	1.122674	0.970932	0.914040	0.857354	0.730966	0.612187	0.587193
Proportion	0.5278	0.1370	0.0677	0.0311	0.0299	0.0276	0.0239	0.0225	0.0211	0.0180	0.0151	0.0144
Cumulative	0.5278	0.6648	0.7325	0.7637	0.7935	0.8212	0.8450	0.8675	0.8886	0.9066	0.9217	0.9361

McNair 등(1992)이 구분한 긴장과 불안 요인, 의기소침과 낙심 요인, 피곤과 무기력 요인, 혼돈과 당황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이 본 연구에서는 제 1요인에 속하고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McNair 등(1992)은 분노와 적개심 요인으로 구분한 '39번-썩쓸하다'가 요인부하치나 의미에 있어서 분노에 해당되기 보다는 제 1요인의 다른 문항들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제 1요인에 포함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 1요인에 속하는 문항은 모두 21문항으로 전체 34문항 중에서 많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며, 실제로 factor plot을 그려보아도 거의 대부분의 문항이 제 1요인에 쏠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의 기분 중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몇 개의 문항을 제외한 모든 부정적인 내용들이 제 1요인에 속하고 있으므로 요인의 명명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자는 이 모든 문항들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우울할 때 표현될 수 있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여 [불안-우울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제 2요인에 속하는 8개의 문항을 살펴보면, McNair 등(1992)이 구분한 생기와 활력요인에 속하는 5개의 문항과 McNair 등(1992)은 혼돈과 당황 요인이라고 구분한 '54번-능률적이다'가 요인부하치나 의미에 있어서 이 요인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포함하였다. 또한 McNair 등(1992)은 우호 요인으로 구분한 '6번-상쾌하다'와 '30번-남에게 도움이 된다'도 요인부하치로 보아도 여기에 해당되며, 의미에 있어서도 제 2요인에 속하는 다른 문항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되어 제 2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제 2요인에 속하는 8개의 문항에 대한 명명은 삶이 생기고 활기차다고 느낄 때 경험할 수 있는 기분이라고 판단되어 「활력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요인에 속하는 5개의 문항을 살펴보면, McNair 등(1992)이 분노와 적개심 요인으로 구분

〈표 4〉 기분상태 검사지

기분상태 검사지

다음 단어들은 기분(氣分)을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를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기분 상태를 그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0-4)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한 문항도 빠짐 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보 통 그 렇 다	많 이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전 혀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보 통 그 렇 다	많 이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화가난다 .....	0	1	2	3	4	18. 잔-신경을 쓴다 .....	0	1	2	3	4
2. 상쾌하다 .....	0	1	2	3	4	19. 외롭다 .....	0	1	2	3	4
3. 생기넘친다 .....	0	1	2	3	4	20. 즐겁다 .....	0	1	2	3	4
4. 혼란스럽다 .....	0	1	2	3	4	21. 썩쓸하다 .....	0	1	2	3	4
5. 했던일이 후회스럽다 .....	0	1	2	3	4	22. 지친다 .....	0	1	2	3	4
6. 불안정하다 .....	0	1	2	3	4	23. 불안하다 .....	0	1	2	3	4
7. 의욕이 없다 .....	0	1	2	3	4	24. 싸우고 싶다 .....	0	1	2	3	4
8. 짜증난다 .....	0	1	2	3	4	25. 처진다 .....	0	1	2	3	4
9. 슬프다 .....	0	1	2	3	4	26. 무기력하다 .....	0	1	2	3	4
10. 활동적이다 .....	0	1	2	3	4	27. 민첩하다 .....	0	1	2	3	4
11. 울적하다 .....	0	1	2	3	4	28. 배신당하다 .....	0	1	2	3	4
12. 희망이 없다 .....	0	1	2	3	4	29. 능률적이다 .....	0	1	2	3	4
13. 심술이 난다 .....	0	1	2	3	4	30.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 .....	0	1	2	3	4
14. 근심스럽다 .....	0	1	2	3	4	31. 쉽게 깜박 잊는다 .....	0	1	2	3	4
15. 집중할 수 없다 .....	0	1	2	3	4	32. 두렵다 .....	0	1	2	3	4
16. 피곤하다 .....	0	1	2	3	4	33. 힘이 솟는다 .....	0	1	2	3	4
17. 남에게 도움이 된다 .....	0	1	2	3	4	34. 매사가 불확실하다 .....	0	1	2	3	4

한 문항들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12번-짜증나다'의 경우는 요인부하치로 보면 제 1요인에 속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원뜻에 역전된다는 의미가 있고 McNair 등(1992)도 이 요인에 속하는 다른 문항들과 같은 맥락으로 보았으므로 제 3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제 3요인의 명명은 마음에서 화가 나고 노하는 감정이 될 때 표현하는 기분이라고 판단되어 「분노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McNair 등(1992)이 개발한 POMS의 7개요인-65문항을 우리 나라 노인들에게 적용하기에 타당하도록 도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한국 노인들, 31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하면서 수정한 결과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수정된 기본측정도구, 3개요인-34문항에 대한 Cronbach Coefficient Alpha 값은 .95로 높게 나타났으며 <표 2>의 괄호로 표시된 8개의 문항과 같이 번역을 약간 교정한 후 최종적으로 수정한 도구는 <표 4>와 같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들이 노화를 겪으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어떠한 느낌을 지니고 있는지 그 기분을 파악하여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즉 노인들의 기분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서양에서 개발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우리 문화에서 우리 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도구를 타당화시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370명을 임의로 표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들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은 51명의 자료는 제외되어 총 319명의 자료(86%)가 분석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McNair 등(1992)이 개발한 기분상태 측정도구, POMS를 윤(1993)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로써 문항의 내용과 번역에서 65문항을 전체적으로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6년 2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되었으며, 면담을 첨가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딩하여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구성타당도를 보기 위해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였으며, 도구의 신뢰

도 검증은 Cronbach Coefficient Alph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우리 나라 노인들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한 기분측정도구로 타당화시키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근거하여 65문항의 도구를 축소, 수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의미하는 Cronbach Coefficient Alpha 값에서 전체 문항과의 상관성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였는데, .02 이하로 상관관계가 나타난 6개의 문항(1번-친절하다, 13번-신중하다, 22번-마음이 느긋하다, 25번-동정심있다, 33번-성을 낸다, 60번-태평스럽다)과 .03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인 5개의 문항(2번-긴장하다, 43번-온화하다, 47번-반항적이다, 51번-민첩하다, 55번-신뢰하다) 가운데 51번을 제외한 10개의 문항을 제외하였다.

둘째, 전문가들과 노인들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문항, 의미가 난해하거나 애매한 문항이라고 합의된 내용을 수정하는데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구를 수정한 내용을 POMS의 요인별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1) POMS의 긴장과 불안 요인에 속하는 9개 문항 가운데 5개의 문항(2, 16, 20, 22, 27번)이 제외되고, 10, 26, 34, 41번 4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 2) POMS의 의기소침과 낙심 요인에 해당되는 15개의 문항 중에서는 7개의 문항(5, 23, 32, 36, 44, 45, 62번)이 제외되고, 9, 14, 18, 21, 35, 48, 58, 61번 8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 3) POMS의 생기와 활력 요인에 해당되는 8개의 문항 중에서는 3개의 문항(19, 56, 60번)이 제외되고, 7, 15, 38, 51, 63번 5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 4) POMS의 피곤과 무기력 요인에 속하는 7개의 문항 중에서는 3개의 문항(4, 49, 65번)이 제외되고, 11, 29, 40, 46번 4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 5) POMS의 혼돈과 당황 요인에 해당되는 7개의 문항 중에서는 2개의 문항(37, 50번)이 제외되고, 8, 28, 54, 59, 64번 5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 6) POMS의 우호 요인에 해당되는 7개의 문항 중에서는 5개의 문항(1, 13, 25, 43, 55번)이 제외되고, 6, 30번 2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 7) POMS의 분노와 적개심 요인에 해당되는 12개의 문항 중에서는 6개의 문항(17, 31, 33, 47, 53, 57번)이 제외되고, 3, 12, 24, 39, 42, 52번 6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셋째, 이(1995)가 제시한 요인분석의 단계를 참조로

하여 기본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최종 요인행렬에서 3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3개의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 가운데 신뢰도와 내용타당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문항들을 빼고 총 34문항(제 1요인-21문항, 제 2요인-8문항, 제 3요인-5문항)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었는데, 각 요인을 제 1요인「불안-우울 요인」, 제 2요인「활력 요인」, 제 3요인「분노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 의해 수정된 기본측정도구, 3개 요인-34문항에 대한 Cronbach Coefficient Alpha 값은 .95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라는 필연적인 현실에서 노인들이 어떠한 기분상태를 경험하는지를 파악하여 기본적인 노인복지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둘째, 우리 문화에서 노인들의 기분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상황에서 수정된 POMS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기분상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도구의 타당성을 재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강봉규(1993). 심리학요론. 서울: 정훈출판사.
- 김미옥(1987). 노인의 소외감과 신체적 노화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7(1), 1987.
- 김소야자(1984).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변화. 월간간호, 8(9), 30-39.
- 박조열(1983). 노인의 건강(정신건강),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제4회 복지사회 심포지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09-118.
- 보건복지부(1995). 보건사회통계연보. 제40호.
- 보건신문사(1996). 보건연간.
- 송문섭, 이영조, 조신섭, 김병천(1993). SAS를 이용한 통계자료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 송미순, 하양숙(1995). 노인간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미선(1989). 유도된 정서유형과 유도시기가 긍정-부정 단어 회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재량(1993). 운동강도에 따른 달리기 운동이 호르몬 반응 및 무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윤진(1982). 발달단계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 한국노년학, 2, 5-11.
- \_\_\_\_\_ (199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가옥 외(1993). 노인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순목(1994). 요인분석의 관행과 문제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7(1), 1-27.
- \_\_\_\_\_ (1995). 요인분석 I -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이영자(1989). 한국 노인의 건강사정도구 개발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희(1993). 한국 노인의 건강 생활양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1991). 간호·의료연구와 통계분석. 서울: 수문사.
- 이종구(1993). 실험 및 조사자료 분석을 위한 SAS의 이해와 활용. 서울: 성원사.
- 장동환(1964). 한국어의 의미론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성대논문집, 9, 191-205.
- 장인협, 최성재(1987).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산초, 최영희(1985). 노인간호학. 서울: 수문사.
- 정희영(1994). 남자 노인들의 사회관계와 정서적 적응,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조명옥(1992). 전통사회의 노인을 위한 돌봄행위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영희, 백영주, 이지숙(1990). 한국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상태 도구개발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 14-38.
- 최영희, 성명숙, 신윤희, 이지숙, 정승은(1992). 한국노인의 사회적 건강사정 도구개발과 사회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4(2), 113-135.
-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 Grove, J.R. and Prapavessis, H. (1992). Preliminary Evidence for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n Abbreviated Profile of Mood States. Int. Journal of Sports Psychology, 23, 93-109.

Holtzberg, C.S.(1982). Ethnicity and Aging :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n more than just the minority elderly. The Gerontologist, 22(3), 249-257.

Isen, A. and Daubman, K.(1984). The influence of affect on 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206-1217.

Johnson, E.J. and Tversky, A.(1983). Affect generalization, and the perception of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20-31.

Kövecses, Z.(1990). Emotion concepts. New York : Springer - Verlag.

Longman Dictionary Advisory Committee(1993).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Longman.

Lubin, B.(1965). Adjective checklists for measurement of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57-62.

McNair, D.M., Lorr, M. and Droppleman, L.F.(1992). Manual for the profile of mood states. San Diego :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Morris, W.N.(1989). Mood-the frame of mind. New York : Springer - Verlag.

Myers, J.L. and Well, A.D.(1991). Research Design and Statistical Analysis. New York : Harper Collins Pub.

Nowlis, V.(1970). Mood : behavior and experience, In M. Arnold(Ed.), Feelings and Emotions. New York : Academic Press.

Schacham, S.(1983). A shortened version of the profile of moo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305-306.

Shepard, R.J.(1993). Exercise and aging : extending independence in older adults. Geriatrics, 48(5), 61-64.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1986). Merria Webster Inc.

Wessman, A.E. and Ricks, D.F.(1966). Mood and personality. New York : Holt Rinehart Winston.

Wilson, T.D., Laser, P.S. and Stone, J.I.(1982).

Judging the predictors of one's own mood : accuracy and the use of shared the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537-556.

Zuckerman, M., Lubin, B., Vogel, L., and Valerius, E.(1964). Measurement of Experimentally Induced Affec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8(5), 418-425.

- Abstract -

Key concept : Elder's mood, Verification of tool

**A Study on Verification of the Profile of Mood States(POMS) for Korean Elders**

*Shin, Yun Hee\**

This paper was done to verify the use of the Profile of Mood States(POMS) which was developed by McNair, Lorr, and Droppleman(1992) with modifications so that it is appropriate for Korean elders. Through the modified tool,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mood of Korean elders and to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elders.

The subjects were 370 elderly persons over 60 years old and the data for 319 persons(86%) were analyzed. The research tool was the POMS translated by Yun(1993) and corrected by the researcher. Data were collected between February 12 and April 9 in 1996 and analyzed using the SAS package.

The result are as follows :

1. Items with low Cronbach coefficient alpha which means low correlation with total items were removed. The items were removed : friendly, tense, considerate, relaxed, sympathetic, resentful, good-natured, rebellious, trusting, carefree.

---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2. Overlapped or ambiguous items were discussed by colleagues and elders through verification of content – validity and were removed. Five items were removed in tense – anxiety, seven, in depression – dejection, three, in vigor – activity, three, in fatigue – inertia, two, in confusion – bewilderment, five, in friendliness, and six, in anger – hostility. Thirty four items remained : angry, clear – headed, lively, confused, sorry, shaky, listless, peeved, sad, active, blue, hopeless, spiteful, uneasy, unable to concentrate, fatigued, helpful, nervous, lonely, cheerful, bitter, exhausted, anxious, ready to fight, sluggish, helpless, alert, deceived, efficient, worthless, forgetful, terrified, vigorous, and uncertain about things.

3. Factor analysis was done in order to confirm construct validity and three factors were obtained from the result. The first factor, ‘anxiety – depression’ included 21 items, the second factor, ‘vigor’ included eight items, and the third factor, ‘anger’ included five items. Cronbach coefficient alpha for the 34 items was .95.

Based on the result, the following is suggested :

1. a contribute to elder’s welfare can be made by examining Korean elder’s mood in life.
2. there is a need to develop tools appropriate to Korean culture which can be used to examine elders’ mood.
3. The modified POMS tool needs to be reverified with appropriate age groups and settings.